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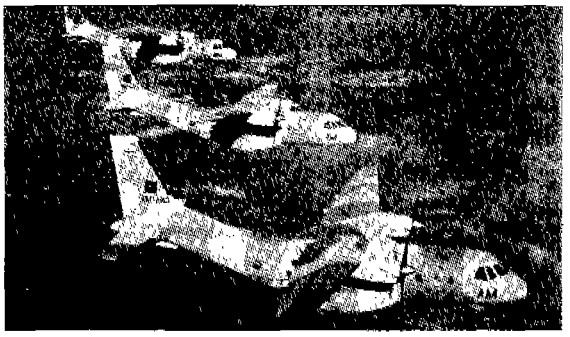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발표

한국항공우주연구소(소장 홍재학)는 9월 19일 2015년까지 총 4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의하면 동 기간중 인공위성 19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독자 발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관계기사 26Page 참조〉

일본, 고등훈련기 TFS-X 개발키로

일본 방위청은 미쓰비시의 FS-X 차기지원전투기를 변형한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여 항공기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계약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위청은 2007년까지 총 141대의 구매계획을 발표했는데 83대는 단좌형 FS-X 전투기이고 나머지 58대는 TFS-X 훈련기이다. 그리고 복좌형 FS-X 전투기도 소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당초에 FS-X 전투기 130대를 대당 54억엔에 제조할 예정이었으나 엔화의 강세로 생산대수를 70대로 삭감했었다. 결국 방위청은 훈련기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생산대수를 다시 늘이는 대신 항공기 단가를 20%까지 낮추도록 요구한 것이다. FS-X 차기지원전투기는 1996년에 양산을 시작하여 1999년에 초호기를 인도하도록 되어있다.



CASA는 CN.235에 이어 후속기종 개발을 발표했다.

CASA, CN-235 파생형 신형 수송기 개발계획

인도네시아와 CN-235군용 수송기를 공동 개발한 스위스 CASA사는 C.212를 확장한 신형 C.212-400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신형기는 전자 항법장비를 구비, 조종실을 대폭 개선하고 Garrett TPE331-10 발전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또 엔진은 엘리슨사의 GMA2100이나 P&W 캐나다의 PW150을 장착하며, 날개를 보강하고 Rudder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C.212는 1974년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총 460대가 판매되었다. 한편 이번 신형기는 IPTN사와 공동개발하지 않고 CASA독자로 개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 전술정찰기 구매

한국이 지상국을 포함한 전술정찰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Flight International지가 9월 20일자로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Raytheon Hawker 4대를 구비하고 있는데 5억5천만 달러 상당의 특수형 비지니스 제트기 4대를 추가구매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일본, 96년도 항공우주관련 예산 통산성 118억엔 지원, 방위청 항공기 65대 구매

일본 통산성의 1996년도 항공기관련 소요예산은 117억5,900만엔으로 전년보다 9억엔 정도 늘어났다. 내년도 통산성의 주요 추진사업은 소형민간수송기(YSX) 및 소형엔진의 국제공동개발이다. 현재 추진중인 국제공동개발의 사업별 소요예산 내역은 B777 사업이 29억2천6백만엔, 소형엔진개발사업 8억3천3백만엔, V2500사업 15억5천3백만엔, YXX사업 4억6천9백만엔 등이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지난 8월 30일 1996년도 소요예산의 개략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비의 개략적 소요금액은 이전에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전년도 예산보다 2.9%(1,370억엔) 증가된 4조8,606억엔으로 계상됐다.

각 자위대(自衛隊)별 구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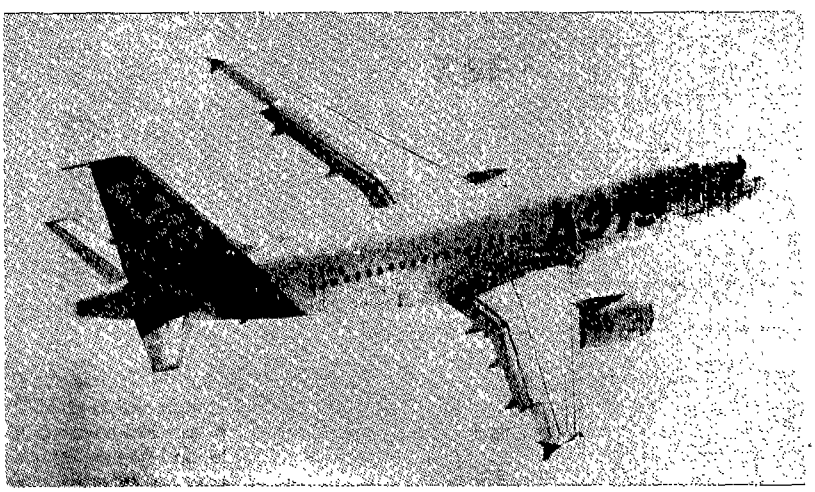
육상자위대 : 19대로서 구매비용은 423억엔이다. 기종별로는 AH-1S 대전차 헬기 1대, UH-60JA 다목적 헬기 4대, UH-1J 다목적헬기 10대, CH-47JA 수송헬기 2대, OH-6D 훈련용 헬기 2대 등이다.

해상자위대 : 15대로서 743억엔. 기종별로는 SH-60JA 대잠수함 헬기 8대, UP-3D 전자전 훈련지원기 1대, US-1 구난비행정 1대, UH-60J 구난헬기 3대, T-5 훈련기 2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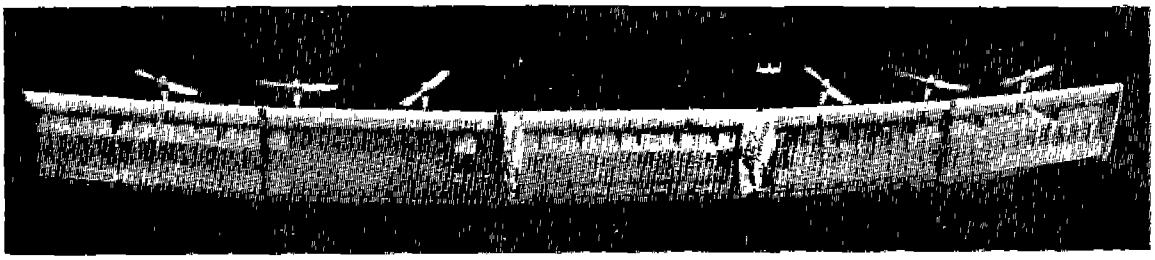
항공자위대 : 31대로서 2,479억원. 기종별로는 F-15J 요격전투기 5대, FS-X 차세대 지원전투기 12대, T-4 중등훈련기 9대, U-125A 구난탐색기 3대, UH-60J 구난헬기 1대, U-4 다목적 지원기 1대 등이다.

A319 비행시험 개시

에어버스사는 23,500파운드급 CFM56-5B6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신형 A319 여객기의 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시작했다. 동 124석급 쌍발 제트여객기는 독일의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버스에서 조립되어 지난 8월 25일 최초비행했는데 마하 0.82의 최고 운용속도를 가지고 있다. CFM International사의 엔진을 장착한 기종은 내년 4월에 인증을 획득하고, International Aero Engines의 V2500-A5엔진을 장착한 버전은 5월에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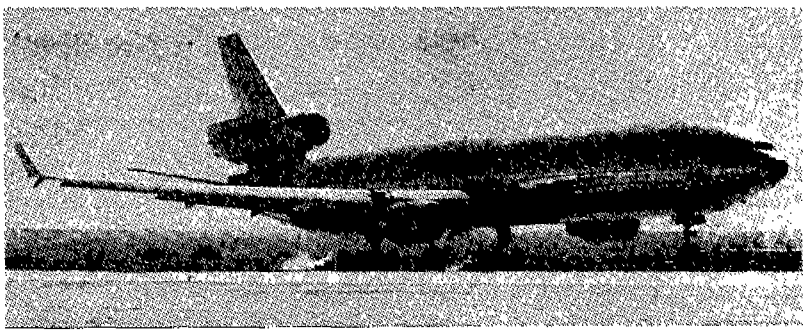
124석 A319여객기 비행시험이 시작되었다.



태양력 무인 항공기 Pathfinder

AeroVironment, Pathfinder 태양력 무인기 기록 갱신

AeroVironment의 Pathfinder 무인 날개비행기가 지난 9월 11일 15,400m 고도까지 비행하므로서 동 태양력 추진 항공기의 최고 상승고도 세계기록을 갱신했다.



MD-11여객기가 조종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착륙에 성공했다.

여객기 조종장치 고장나도 무사히 착륙 NASA, 날개조종 없이 엔진추력 조정

NASA는 지난 8월 29일 Dryden 비행실험센터에서 비행조종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추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대형 여객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MD-11여객기에 NASA에서 개발한 추력조절 소프트웨어를 장비하고 모든 조종면을 고종시킨채 착륙, 항공기 착륙기술에 신기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NASA, Waverider 극초음속기 풍동실험 개시

마하 4에서 6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항공기 "Waverider"의 풍동실험이 NASA에서 수행되고 있다. 공기흡입식 극초음속 엔진을 장착한 동기는 크루즈 미사일 발사기, 고고도 정찰기, 장거리 수송기 및 폭격기로 사용될 수 있다.

동 실험에 필요한 초음속 풍동설비는 보잉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에서 총 22억8천만달러를 들여 설치하기로 했는데 Aero System's Engineering과 Sverdrup Technology사에 예비설계비로 2천2백만달러를 지급했다.

극 초음속기 풍동실험이 시작되었다.